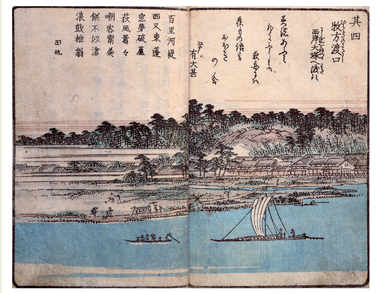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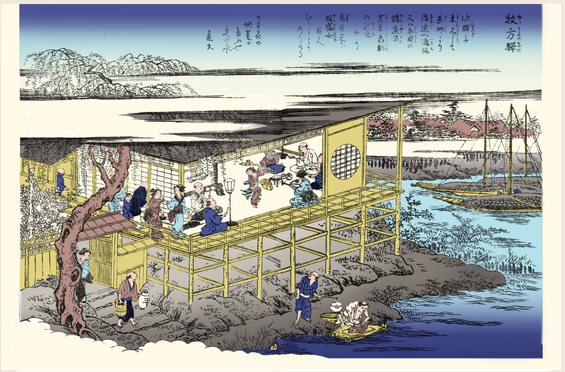
1,790×1,000／看板

산짓코쿠부네[삼십 섬 배]와 구라완카부네[짐을 나르거나 음식을 파는 배]



히라카타 도구치[나루터]



히라카타역 선착장

니시미츠케
[서쪽 성문]

에도시대를 통해 많은 여행자가 히라카타 슈쿠[역참]를 통행했는데 때로는 외국인 여행자가 히라카타 슈쿠에 관한 기록을 남겼습니다. 엥겔베르트 켐퍼, 신유한, 칼 페테르 툰베리, 필리프 프란츠 폰 지볼트, 어니스트 사토 등입니다. 오사카•교토 간의 거의 중간에 있는 히라카타 슈쿠에서는 휴식과 식사를 하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.

그들 중 히라카타 슈쿠의 모습을 자세히 기록한 것은 켐퍼와 지볼트입니다. 두 사람 모두 독일인으로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 상관장의 에도 참부를 의사로서 수행했습니다. 지볼트는 '히라카타의 환경은 매우 아름답고 요도가와 강 유역은 나에게 조국의 마인 계곡을 많이 떠올리게 한다.'고 상기하고 있습니다.